

鼻塞·鼻飶症의 形象醫學的 치료

이용태* · 강덕수¹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 동의대학교 한방바이오연구소, 1: 강덕수한의원

Allergic Rhinitis and Hyungsang Medicine

Yong Tae Lee*, Duk Soo Kang¹

Department of Physiology · Biomedical Research Center of Orient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1: Kang Duk Soo Oriental Clinic

Allergic rhinitis characterized by stuffy nose and watery discharge is, in Oriental medicine, referred to as Bisak(鼻塞) or Bigu(鼻飶). This condition occurs either exogenously or endogenously, and from my clinical experience, most patients who visit my clinic have endogenous causes. The nose in Oriental medicine is closely related to the Lungs, Heart, Large Intestines, Skin, Spleen and Stomach. Therefore, the wholistic approach to allergic rhinitis is much more efficient in treating it than the mere focus-oriented treatment.

Key words : Bisak(鼻塞), Bigu(鼻飶), Allergic Rhinitis, Hyungsang medicine

서 론

臨床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코가 막히거나 맑은 콧물이 흐르는 것을 現代醫學에서는 알러지성 鼻炎이라 하는데, 韓醫學에서는 鼻塞, 鼻飶症에 속한다. 鼻塞은 코가 막히는 증상을 말하며, 鼻飶는 코에서 맑은 콧물이 흐르는 症이다. 鼻塞, 鼻飶症의 原因을 許¹⁾는 風寒으로 보았고, 蔡²⁾는 六淫七情 飲食傷, 勞倦傷을 原因으로 보았으며, 李³⁾는 ‘鼻塞須知問久新, ...’이라 하여 鼻塞은 新久의 慢性과 急性으로 먼저 問診하여 急性은 清金降火, 慢性은 久宜養血 補腎眞이라 하여 오래된 것은 마땅히 養血을 하며 腎의 眞水를 補해야 한다고 했다. 鼻塞·鼻飶症은 크게 外感과 內傷으로 인하여 發病하게 되는데 外感으로 因하여 오는 鼻塞·鼻飶症은 大部分 쉽게 治療가 되나 治療가 안되어서 慢性化 되는 경우는 外感보다는 內傷으로 因한 鼻塞·鼻飶症이 많다.

形象醫學은 ‘存在 그 自體를 病⁴⁾으로 보기 때문에, 鼻塞·鼻飶症이라도 각 個人의 形態, 色, 脈, 증상에 따라 治法과 처방이 달라진다. 形象醫學에서는 人體를 膽體와 膀胱體, 男女, 精·氣·神·血, 五臟 六腑, 六經形, 身形을 통해서 疾病을 診斷하기 때문에 治療 效果가 높다.

이에 저자는 形象醫學의인 觀點에서 鼻塞·鼻飶症을 治療했

던 바 좋은 治療효과를 얻었기에 이를 발표하고자 한다.

본 론

1. 鼻와 관련된 人體의 기관

1) 鼻와 心肺와의 관계

코와 心肺와의 關係를 살펴보면 『素問』의 <五臟別論>⁵⁾에서 ‘五氣入鼻 藏於心肺 心肺有病而 鼻爲之不利也 心肺居上爲陽 肺乃心之蓋而主氣 開竅於鼻故 病則鼻息不利也’라하여 心肺에 病이 있으면 鼻息 不利해진다고 했으며, 『素問』<脈要精微論>⁶⁾에서 ‘夫精明五色者 氣之華也’라고 하여 色의 發顯은 氣의 作用이라 했으며, 許⁷⁾는 ‘心肺 損而色弊’라 하여 心肺의 상태는 色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心肺의 기능이 나빠지면 얼굴의 血색이 안 좋아지고 버짐이 생기며 코도 막히게 된다. 그러므로 코는 心肺의 機能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2) 鼻와 大腸과의 관계

『靈樞』<師傳篇>⁸⁾에 ‘鼻隧以長以候大腸 鼻孔在外 膀胱

1) 東醫寶鑑 國譯委員會編譯, 國譯增補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2, p. 291.
2) 蔡炳允, 韓方眼耳鼻喉科科學, 서울, 集文堂, 1982, p. 221.
3) 李挺, 原本編註醫學入門外集卷2, 서울, 大星文化社, 1981, pp. 41~44.
4) 大韓傳統韓醫學會, 芝產先生臨床學特講III, 서울, 芝山出版社, 1997, p. 379.
5) 張馬合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灣國風出版社, 中華民國66년, p. 97.
6) 上揭書, p. 120.
7) 東醫寶鑑國譯委員會編譯, 國譯增補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2, p. 470.
8) 張馬合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灣國風出版社, 中華民國66년, p. 241

* 교신저자 : 이용태, 부산시 부산진구 진리1로 10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ytleee@deu.ac.kr, · Tel : 051-850-8635

· 접수 : 2005/01/14 · 수정 : 2005/02/14 · 채택 : 2005/03/19

補世 鼻乃肺之竅 大腸肺之府故 鼻以候大腸, …'이라 하여 鼻隧의 길이로써 大腸을 측지하며, 肺와 大腸은 表裏 관계이며, 鼻는 肺의竅이므로 大腸의 기능과도 연관이 깊다. 大腸의 기능이 나빠 서서 泄瀉나 便秘가 생겨 오랫동안 고생하는 사람들 중에는 鼻塞, 鼻軌症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鼻는 生氣의 根源이며 十二經脈의 根이 되며 呼吸의 門이기 때문에 鼻와 大腸과도 연관이 있다. 韓醫學에서는 手術을 하나의 흡으로 본다. 腹部手術의 경우는 배의 운동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며, 元氣의 손상을 받아 肺氣가 虛하여 鼻塞不利 해지기 쉽다.

3) 鼻와 皮膚와의 관계

『靈樞』 <本藏>⁹⁾에 '肺合大腸, 大腸者, 皮其應'이라 하여 肺와 大腸은 表裏 관계이며 大腸의 상태가 皮膚에 반영된다고 하였으며, 『醫學入門』 <鼻>¹⁰⁾에 '苟或 寒傷皮毛則鼻塞不利 …'라하여 혹 찬 기운이 皮毛를 傷하게 되면 코가 막혀서 通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皮와 鼻는 다 肺에 屬하여 外氣에 가장 먼저 접하는 곳으로써 鼻와 皮膚와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4) 鼻와 脾胃와의 관계

얼굴은 脾胃에 속하며 코가 얼굴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中宮에 속한다. '若因, 飢飽勞役所傷脾胃, 生發之氣, 不能上升, 邪害空竅, 故不利而不聞香臭者, 宜養脾胃…'라하여 배고프거나 飽食한 상태에서 勞役過度 하면 脾胃가 손상을 받아서 코의 기능이 손상을 받는 경우에는 脾胃를 養해야한다고 되어 있다. 土氣가 부족하다는 것은 外部에 대한 抵抗力이 부족한 것으로서 주변환경 즉 外部의 風寒暑濕燥火에 適應하지 못하여 鼻에 異常을 발생하게 된다.

5) 鼻와 肺와의 관계

코는 呼吸의 門이며 肺의 外候이며, 肺는 五行으로 金에 屬하고 鼻는 肺에 開竅하여 氣를 主管한다.

『素問』 <陰陽應大論>¹¹⁾에 '肺主鼻, 肺氣通於鼻 肺和則鼻能知香臭埃故 肺主開竅在鼻'라하여 肺氣가 鼻에 통하니 肺가 和하면 鼻가 香臭를 안다고 했으며, 『靈樞』 <本神篇>¹²⁾에는 '肺藏氣 氣舍魄 肺氣虛則 鼻塞不利少氣 實則… 肺主氣以 司呼吸故 肺氣虛則 鼻塞不利'라하여 肺氣가 부족하면 鼻塞不利하여진 다 하였다. 鼻와 관련된 人體의 기관을 요약하면, 코는 心肺, 大腸, 皮膚, 脾胃, 肺, 배꼽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2. 鼻塞·鼻軌症의 原因 및 증상

1) 鼻塞¹³⁾의 原因 및 증상

鼻塞症은 모두 肺에 屬한다. 肺가 風寒에 感觸하여 鼻塞등이 發한다. 寒이 皮毛를 傷하면 코가 막히고 不利하며 火가 清道를 鬱蒸 하면 香臭를 모르니 新發한 症은 우연히 風寒을 感觸하여 코가 막히고 소리가 무거우며 콧물을 흘리고 재채기를 한다.

2) 鼻軌¹⁴⁾의 原因 및 증상

鼻軌라는 것은 코에서 맑은 콧물이 흐르는 症이다. 傷風하면

洪然히 코에 清涕가 흐르는 症은 肺寒에 屬하며 코에 濁涕를 흘리는 것은 風熱에 屬하는 症이다.

內傷의 病變¹⁵⁾은 처음에 脾胃가 障礙된다. 肺經의 脈은 아래로 大腸에 絡하고, 그위에 胃口을 循環하므로 肺와 中焦는 密接한 關係가 있다. 陽虛한 體質이 生冷物, 果物 등을 過食하여 胃腸을 損傷하고 위에서 肺에 영향을 미쳐 肺陽虛를 일으키면 津液이 散布할 수 없게되어 溼稀한 多量의 痰이 생긴다. 이것은 『素問』 <咳論>에서 '其寒飲食入胃, 從肺脈上至於肺則肺寒, 肺寒則外內合邪, 因而客之 則肺咳,'이다. 이것이 內傷의 病機이다. 또한, 脾의 運輸轉化의 特徵¹⁶⁾은 精微物質을 上昇하는데 있다고 보며 脾氣가 上昇하면 運化가 健全하나 不昇하면 疾病이 생긴다. 脾氣의 不昇은 脾陽虛 中氣부족 濕濁食滯阻碍 등에 의해 일어나는데 이 중에서 中氣부족은 脾胃虛弱을 말하며 더 惡化되면 中氣부족 즉 脾氣下陷이 惹起된다. 中氣下陷이 되면 運輸 消化機能이 떨어지고 水液代謝가 원활치 못해 浮腫 小便頻數 或淋瀝 등이 오고 肺氣마저 虛해져서 肺의 類機能系마저 紊亂해진다.

肺의 類機能系는 肺-大腸-鼻-皮膚-汗孔-毛髮-肛門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中氣下陷에 의해 肺氣가 虛해지면 咳嗽 多痰 臍傍動悸 泄瀉 鼻淵 外感風寒邪 多汗 毛髮脫落 白屑(비듬), 脫肛 등이 惹起된다.

3. 病理 및 치료¹⁷⁾

鼻塞·鼻軌症의 치료는 대개 疎風, 降火 하는 것이 要點이다. 風寒外感일 때는 溫하면서 散하고 風熱이 內鬱 되었거나 혹은 外感이 오래 경과되면 鬱結되어 熱로 될 때나 혹은 內因이나 飲食에 損傷되었거나 鼻塞이나 鼻汁이 흐를 때는 清金降火 하여야 한다. 오랫동안 經過된 것은 養血補腎하는 것이 要點이다. 鼻涕나 鼻軌 淵이 오래도록 낫지 않는 것은 心血 虧損되면 腎水가 적어지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養血을 하면 血이 生하므로 火가 降下하고, 補腎을 하면 水가 上昇하므로 金이 맑아진다. 鼻塞이 오래되어 낫지 않는 것은 반드시 肺胃가 損傷되어 清氣가 上昇하지 못한 것이며 外感이 아니다. 그러므로 補中益氣湯으로 치료하는 것이 根本을 다스리는 方法이다.

- 1) 鼻軌 ~ 風寒에 感觸되었을 때 九味羌活湯, 蔘蘇飲, 二陳湯 加 川芎, 當歸, 細辛, 白芷, 防風, 羌活, 桔梗, 薄荷, 生薑
- 2) 鼻塞 ~ 寒이 皮毛를 傷하면 코가 막히고 소리가 무거우며 콧물을 흘리고 재채기를 하는데 羌活沖和湯, 蔘蘇飲을 쓰고 또한 風寒에 感觸하여 鼻塞症에는 清金降火시키는 涼膈散에 加 川芎, 荊芥, 白芷를 쓰고 鼻塞하여 香臭를 모르는데 麗澤通氣湯을 쓴다. 氣虛한 사람이나 元氣가 下陷하여 鼻塞한데는 補中益氣湯을 쓴다.

4. 鼻塞 鼻軌症의 外感과 內傷의 鑑別 方法

鼻塞·鼻軌症에 있어서 먼저 外感과 內傷을 區分해야 하는데 『東醫寶鑑』에 나오는 外感과 內傷을 分別하는 경우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鼻息¹⁸⁾

15) 鄭遇悅外, 韓方臨床病理學, 서울, 永林社, 1998, p.166.
 16) 中載鏞編著, 力藥合編解說, 서울, 傳統醫學研究所, 1993, p.33.
 17) 蔡炳允, 韓方眼耳鼻咽喉科學, 서울, 集文堂, 1982, p.230.

9) 上揭書, p.296.
 10) 李挺, 原本編註醫學入門外集卷2, 서울, 大星文化社, 1981, p.43
 11) 張馬合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灣國風出版社, 中華民國66年, p.46.
 12) 上揭書, p.60.
 13) 東醫寶鑑國譯委員會編譯, 國譯增補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2, p.290.
 14) 上揭書, p.291.

(1) 外感은 코가 메고 콧물이 흐르며 소리가 무겁고 氣가 壅塞하다.

(2) 內傷은 鼻息이 和하고 緩하나 다만 고르지 못하다.

부연하면 內傷으로 인한 鼻息不利와 外感으로 인한 鼻息不利의 차이점은 內傷으로 인해서 發熱이 생겨서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오는 內傷의 鼻息은 목소리가 쉬지 않는다. 그러나, 外感 風寒이나 傷寒으로 인해서 오는 鼻息不利의 경우에는 목소리가 쉰다. 즉, 목소리가 쉬면서 기가 壅盛하면서 막히면 傷風으로 自汗 惡風에 쓰는 처방을 써야 하고, 목소리는 변하지 않고 코가 막히는 것은 內傷發熱로 인한 것이니 內傷 처방을 써야 한다.

鼻息不利¹⁹⁾는 四時運行에 따른 變化에 人體의 生理 機能이 相應 되지 못할 때 생긴다. 사람도 카멜레온과 같다. 사람도 봄이 되면 옷만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얼굴 색도 봄의 색으로 變해야 한다. 이런 變化에 適應이 안될 때 鼻息不利가 온다. 얼굴 색이 여름엔 붉고, 가을엔 희고 봄에는 약간 푸르고 겨울엔 검게 변화하는 것이 原則이다. 봄에는 人體가 봄에 適合해야 하고 여름엔 人體가 여름에 適合해야 하고, 가을엔 人體가 가을에 適合해야 하고 겨울엔 人體가 겨울에 適合하는 운동을 해야 하는데 適合하는 운동을 못했을 때 鼻息不利가 온다. 이때에 補中益氣湯을 쓰는데 補中益氣湯은 寒冷溫熱의 昇降을 시켜주는 藥이다. 즉, 季節의 變化에 適應을 하게 해주는 藥이다. 요즘은 季節이 바뀔 때마다 鼻塞이나 鼻軌症이 생겨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鼻息不利는 飲食을 먹으면 胃에서 清濁을 가려서 이것을 心肺에 올려줘야 하는데 올려주지 못해서 생기며, 이것을 傷風이나 傷寒으로 보고서 誤治하면 몸을 傷할 수 있으므로 鼻息不利를 주의 깊게 살펴서 外感和 內傷을 잘 區分하여 投藥에 臨해야 한다. 또한 [脈候]에서 外感은 人迎脈이 浮緊或 洪大하고 數하며 內傷은 氣口脈이 緊盛하고 或滑하고 疾하다. 이것을 구분해서 投藥에 임해야 한다.

外感和 內傷의 鑑別方法을 要約하면 外感으로 인한 鼻息不利의 경우에는 목소리가 변하지만 內傷으로 인한 鼻息不利의 경우에는 목소리가 변하지 않는다. 脈에서도 外感은 人迎脈이 緊盛하고 內傷은 氣口脈이 緊盛하다.

5. 鼻塞·鼻軌症과 관련된 形象醫學의 理論

形象醫學에서는 鼻塞·鼻軌症 및 각종 疾病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理論이 있는데 그 理論에 따라 각기 다른 診斷과 治療가 적용된다.

1) 膽體와 膀胱體

形象醫學에서는 사람을 膽體와 膀胱體로 나눈다. 膽體는 陰陽으로 볼 때는 陽盛陰虛하고 氣血로 볼 때는 多氣少血하다. 膀胱體는 陰陽으로 볼 때는 陰盛陽虛하고 氣血로 볼 때는 少氣多血하다²⁰⁾. 膀胱體는 얼굴 전면이 발달하고 뚱뚱한 편이며, 膽體는 측면이 발달하고 마른 편이다.

2) 男과 女

女子는 얼굴이 白色이고 麗하며 氣는 盛하고 形은 衰하며 키

는 작다. 女子는 形이 衰한 것을 排除하기 위해 입이 발달하였다. 男子는 얼굴이 黑色이고 모가 났으며 氣가 衰하고 形이 盛하며 키가 크다. 男子는 形이 盛하니 코가 발달하였다. 男子가 女子와 같이 생긴 경우는 얼굴이 희거나 키가 작거나 입이 발달한 경우이다. 女子가 男子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검거나 키가 크거나 코가 발달하였다. 이와 같이 純男과 純女가 드물기 때문에 男子와 女子가 錯綜되어 있다는 것이다²¹⁾. 女子가 男子같이 생긴 경우의 치료는 氣가 實한 女子는 血을 調養하면서 그 氣를 消耗시켜주고, 몸이 찬 것은 따뜻하게 하여 주어야 한다. 男子가 너무 희거나 柔하면 이것이 모순이며, 얼굴이 희면 肺氣가 부족하여 鼻塞不利하기 쉽다. 얼굴에 있는 耳目口鼻를 上下의 개념으로 나누어 보면 눈과 귀는 上에 屬하고, 코와 입은 下에 屬한다. 이때의 上下概念은 貴賤의 概念이다²²⁾. 耳目口鼻를 관찰하는데 있어서 動靜의 概念으로 보면 男子는 코와 귀를 爲主로 잘생겨야 하고, 女子는 입과 눈을 爲主로 잘생겨야 한다. 코와 입을 가지고 男女를 비교하면 男子는 코를 爲主로 생겨서 呼吸을 爲主로 살고, 女子는 입이 위주로 생겨서 먹는 것을 爲主로 산다는 것이다²³⁾.

3) 精·氣·神·血

精·氣·神·血은 頭와 耳目口鼻의 형태로써 존재물의 씨앗 즉 종자에 해당하고 ○ □ ▽ △의 4가지²⁴⁾ 圓方의 모양으로 나누어진다. ○은 精科, □는 氣科, ▽는 神科, △는 血科이다. 圓方의 性質은 圓은 動하는 것을 주로 하고 方은 靜하는 것을 주로 한다. 精은 둥그니까 멎어야 되는데 泄하면 病이 된다. 그래서 精科는 糖尿가 오기 쉽다. 氣科는 方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滯해서 病이 오고, 神科는 鬱하기 쉽고, 血科는 未包하여 즉 새기 쉽다. 그래서 精科·血科는 虛症이 오기 쉬우므로 補精, 補血, 補氣가 基本 治法이 되고, 氣科·神科는 鬱滯로 인하여 疾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行氣, 解鬱, 化痰, 降火, 消導하는 治法으로 치료에 臨해야 한다.

4) 五臟 六腑

人體內部에 있는 五臟六腑의 상태는 人體의 外部로 發顯되는데 그 形色의 發顯象을 보고 五臟六腑의 疾病狀態를 알 수 있다. 五臟六腑에서 五臟은 精神 血氣 魂魄을 간직하여 滿而不實²⁵⁾하고, 六腑는 水穀을 消化해서 津液을 만들며, 實而不滿한다 하였으며, 五臟病은 虛實症이 주가 되고, 六腑病은 寒熱症의 여부가 관건이 된다. 五臟六腑는 五臟은 耳目口鼻의 大小·高低·正偏·剛柔²⁶⁾를 보고 六腑는 小大·長短·厚薄·結直·緩急에 따라서 外部의 形象으로 發顯된다. 五臟 중에서 肺臟은 氣를 주관하여 呼吸을 맡고 이마의 주름살로 大小·高下·堅脆·端正·偏傾의 상태를 알 수 있으며 그 색은 白色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肺氣가 虛하면 얼굴이 蒼白하다. 脾臟은 水穀을 消化하고 입술의 형태상의 好惡과 그 주름살로 脾臟의 상태를 알 수 있으며, 그 색은 黃色으로 나타난다. 脾에 病이 생기면 얼굴빛이 누렇게 배

21) 上揭書Ⅵ. 1998. p.357.

22) 上揭書Ⅱ. 1997. p.274.

23) 上揭書Ⅲ. 1997. pp.249,250.

24) 上揭書Ⅲ. 1997. p.403.

25)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p.137.

26)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Ⅴ,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297.

18) 東醫寶鑑國譯委員會編譯, 國譯增補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2. p.645.

19)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Ⅲ, 서울, 芝山出版社, 1997. p.387.

20)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Ⅴ,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57.

가 脹滿하고 飲食이 消化가 되지 않는다.

5) 六經形

十二經脈은 手足 三陰三陽經으로 구성되며 각각 氣血多少가 다르다. 經絡의 명칭은 手足과 三陰三陽과 臟器의 이름이 함께 붙는다. 그래서 三陰三陽에는 六氣와 五行이 相應되어 있다. 六經形은 太陽形 少陽形 陽明形 太陰形 少陰形 厥陰形의 形象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形象은 전신을 살피지만 특히 얼굴에서 코와 눈의 昇降氣勢와 안면의 突出되고 陷沒함에 따라 구분한다. 각각의 形象은 太陰形은 눈↓코↓, 太陽形은 눈↑코↑, 少陰形은 눈↑코↓, 少陽形은 눈↓코↑이며²⁷⁾, 陽明形은 前面의 發達形이고 눈이 튀어나오고, 厥陰形은 눈이 들어가고 陷沒形이다. 各形에 따른 氣血의 多少관계는 陽明은 多氣多血, 太陰·少陰·少陽은 多氣少血, 太陽·厥陰은 多血少氣이다. 六經病은 外部의 風寒暑濕燥火의 六氣가 人體에 侵入할 때 각각 그 發達된 經絡을 따라 人體에 侵入한다.

6) 身形

身形은 形象이 큰 것이 病인데, 肺가 크면 外見上 어깨가 넓고 엉덩이가 크면 脗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코를 벌름거리는 것도 肺의 기능과도 관련을 맺고 있다. 男子가 코가 큰 것은 氣虛에 속하며, 女子가 코가 큰 것은 氣實이다.

上下(天地)는 인체에 있어서 上은 頭에 해당하여 天氣를 받는 곳이며 下는 軀에 該當하여 地氣를 받는 곳이다. 形象醫學에서는 '頭大身小'와 '頭小身大'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이를 男女에 대입하면 男子는 腎精 精을 중심으로 하였기에 頭大身小가 되고, 女子는 胃 氣를 中心으로 하였기에 頭小身大가 된다. 그러므로 여자는 七情·內傷으로 인한 消化器疾患이 많고 男子는 腎臟疾患이 많다. 左右(肥瘦)는 우리 인체의 左右는 對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右氣左血'이라 칭하여 氣血論이다. 陰陽과 氣血이 調和가 이루어지면 人體는 健康하고 그 調和를 잃어버리면 疾病이 발생하게 된다. 形象醫學에서는 '心肺脾貴, 肝腎은 胃實'이라 하는데, 上焦는 心肺가 左右로 對稱을 이루고 脾氣가 上昇하여 心肺를 滋養하는데 이를 脾貴이라 하며, 下焦는 肝腎이 左右로 對稱을 이루고 胃氣가 下降하여 肝腎을 滋養하는데 이를 胃實이라 한다. 그러므로 體形으로 보면 下焦가 발달한 者는 胃가 發達한 것이요, 上焦가 發達한 者는 脾가 發達한 것이다.

前後(燥濕)는 人體의 後面(背部)은 北方에 屬하여 寒하고 燥한 곳이 되며 人體의 前面(腹部)은 南方에 屬하여 溫하고 濕한 곳이 된다. 그러므로 人體의 前面은 乳房이나 배가 나온다는지 털이 많이 나지만 人體의 後面은 筋骨로만 이루어지고 거의 살이나 털이 없다. 배가 나오거나 유방이 나오거나 털이 많은 者를 濕이 많다고 하며 反對의 경우를 燥하다고 한다. 表裏의 개념은 겹질과 알맹이의 관계로 이해하기도 하며 臟腑의 表裏關係처럼 이해하기도 한다. 形象醫學에서는 表裏의 概念을 男女에서는 剛柔로 본다. 인체에서는 등(背)과 배(腹)로 본다. 表는 剛한 것이요, 裏는 柔한 것으로 볼 때 男子는 表가 되고 女子는 裏가 된다. 男子에 있어 表는 등(背)이요 裏는 배(腹)이다. 女子에 있어서는 表는 배(腹)요 이는 등(背)이다²⁸⁾.

27) 上揭書V. 1998. p.145

6. 鼻塞·鼻衄症에 관한 臨床例

1) 치험예1 - 여자 29세 未婚

(1) 맥 : 76 / 72

(2) 형색 : 氣科 코가 크면서 뺨쪽하게 생겼으면서 코가 내려먹었다.

(3) 증상 : 코가 막히고 콧물이 자주 흐른다. 魚際가 푸르다. 生理가 늦어진다(주기 35일). 조금만 일을 해도 疲勞를 빨리 느낀다.

(4) 처방 및 치료 : 血虛有寒 으로 보고서 通經四物湯²⁹⁾을 썼다.

(5) 고찰 : 魚際가 靑³⁰⁾한 것은 寒 으로 因한 것이며, 또한 콧물이 흐르는 것도 肺寒으로 因하며 生理가 늦어지는 것도 寒에 해서다. 處女는 먼저 生理를 調節해서 寒熱을 調節해 주면 코가 막히고 콧물이 흐르는 것을 치료 할 수 있다.

2) 치험예2 - 남자 12세

(1) 맥 : 脈이 微弱하고 無力하다.

(2) 형색 : 얼굴 色이 안 좋고 버짐이 있고 키도 작고 성장이 느리고 수척하다

(3) 증상 : 밥을 잘 안 먹고 감기를 자주 앓아서 코가 막히고 밤에 소변도 잘 지리고 밥도 잘 안 먹고 키도 잘 크지 않고 가끔 배가 아프다.

(4) 처방 및 치료 : 八物湯³¹⁾ 加 鹿茸

(5) 고찰 : 元氣가 虛弱하여 感氣를 잘 걸리므로 八物湯 加 鹿茸을 처방하였다. 얼굴에 血色이 안 좋고 버짐이 생긴 것은 心肺機能이 안 좋은 것임으로 心肺機能을 좋게 해주고 氣血을 돌구어 주는 八物湯을 쓴 것이다. 氣血을 돌구어주면 心肺機能이 좋아지며 키도 크게 해 준다. 心臟은 汗과 便을 主管³²⁾하므로 八物湯을 써도 夜尿症을 치료 할 수 있다.

3) 치험예3 - 여자 12세

(1) 형색 : 얼굴 色이 누렇고 얼굴 形이 둥근 精科이며 입술이 붉다.

(2) 맥 : 80 / 78

(3) 증상 : 鼻塞이 5년이됨. 코가 막히고 콧물이 목구멍 뒤로 넘어가고 특히 겨울과 여름철에 증상이 더 심해진다. 學校 다녀와서 자주 드러눕고 T·V도 누워서 視聽한다. 腹痛, 泄瀉가 잦다. 걷다가 다리 발목을 잘 뻐다. 腹診을 하니 臍 주위가 壓痛이 있다.

(4) 치료 및 경과 : 補脾湯³³⁾

1997년 8월 10일 초진: 본 韓醫院에 來院하여 診察한 결과 五臟病의 脾虛의 內外症이 다 있어서 補脾湯을 投與함.

1997년 8월 20일 재진 : 腹痛, 泄瀉, 증상이 많이 호전되고 코막힘과 콧물이 흐르는 것이 조금 호전됨.

1997년 8월 30일 재진 : 10일 服用後 누런 얼굴 色이 하얗게 되고 코막힘 콧물 나오는 것도 好戰됨. 腹痛, 泄瀉, 증상이 완전히 개선되고 腹診時 배꼽 部位의 壓痛도 없어지고 모든 증상이 好戰됨

(5) 고찰 : 이 환자는 얼굴 色이 누런 것이 特徵이다. 증상은 脾

28) 上揭書II. 1997. p.109

29) 東醫寶鑑國譯委員會編譯, 國譯增補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2, p.145

30) 上揭書, p.399.

31) 上揭書, p.670.

32) 上揭書, p.778.

33) 上揭書, p.125.

臟病症의 脾虛증상이 많이 있다. 東醫寶鑑의 五臟門에 나오는 처방은 內外症이 같이 있을 때 써야 효과가 있다.

4) 치험예4 - 여자 28세 미혼

(1) 형색 : 얼굴이 색이 희고 키가 크며 眼鏡 着用(高度近視)

(2) 맥 : 90 / 90

(3) 증상 : 목소리가 약간 쉬며 코가 막히고 맑은 콧물이 흐른다. 1년 내내 감기를 끼고 산다. 消化가 안되고 四肢가 無力하고 頭痛이 있다. 기운이 없고 매사에 의욕이 없다.

(4) 치료 및 경과 : 陶氏補中益氣湯³⁴⁾

1999년 5월 4일 본 韓醫院에 來院(결혼 2달 남기고 코막힘 콧물 재채기 때문에 내원함). 上記처방 10일 服用후 코막힘 재채기 콧물이 흐르는 증상이 개선됨.

1999년 5월 15일 재진 : 코막힘, 재채기, 콧물 흐르는 증상이 아주 호전되고 목소리도 맑아지고 四肢無力症도 많이 개선됨.

1999년 5월 28일 재진 - 모든 증상이 호전됨 :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추려 視力을 측정해보니 視力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함.

(5) 고찰 : 氣虛³⁵⁾는 肺脾의 機能부족이고 體質이 虛弱하기 때문에 外邪가 侵入하면 兩臟의 機能失調를 초래하고, 脾虛로 運化가 失調하여 津液을 輸布할 수 없어서 四肢가 無力하여지며 肺虛로 宣降이 失調하여 津液을 散布할 수 없으므로 水液이 肺에 壅滯하여 咳嗽, 咯痰증상이 나타난다.

5) 치험예5 - 여자 15세

(1) 형색 : 양방병원에서 2년 전에 알리지성 비염으로 진단을 받고 來院함

(2) 맥 : 70 / 70

(3) 증상 : 얼굴 색이 희고,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고 귀에서 소리가 난다(換節期만 되면 증상이 나타난다). 땀이 많이 난다(自汗, 盜汗). 차멀미도 심하다. 조금만 뛰어다녀도 다리가 아프다. 腹診時 배꼽을 中心으로 해서 上下 左右가 다 아프다.

(4) 치료 및 경과 : 補中益氣湯³⁶⁾ 加 季節藥(봄)

1998년 3월 7일 초진 : 상기처방 10일 복용후 콧물 코막힘이 개선됨.

1998년 3월 20일 재진 : 코막힘이 없어지고 自汗, 盜汗, 귀에서 소리나는 것도 호전됨.

(5) 고찰 : 얼굴 색이 하얗다³⁷⁾는 것은 肺氣虛이고 人體가 內外의 六氣를 이기지 못하여 온 病이다. 換節期 때마다 鼻炎이 생긴다는 것은 24節侯에 人體가 相應하지 못한 것이므로 24 節侯에 相應 시켜 주는 補中益氣湯 加 季節藥을 投與했다.

6) 치험예6 - 여자 54세

(1) 형색 : 얼굴색이 희고 약간 肥滿, 子宮外妊娠으로 帝王切開手術을 함(15년전)

(2) 맥: 64 / 64

(3) 증상 : 콧물, 눈물, 재채기, 코막힘이 있다(4계절 다 그렇지만 봄에 심하다-본인이 자기는 알리지 체질이라 함)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로하며 氣運이 없다. 食事 후에 명치 밑이

아프고 飲食을 먹으면, 졸리고 더 힘이 없어진다. 얼굴로 熱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땀이 나고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皮膚가 약간 따갑다. 自汗, 盜汗이 있고 渴症은 없다.

(4) 치료 및 경과 : 補中益氣湯 加 白芍藥, 黃柏³⁸⁾

1999년 4월 7일 來院하여 上記 처방을 투여함.

1999년 4월 19일 再診 : 10일 服用후 來院했는데 얼굴로 熱이 오르는 증상과, 땀이 나는것, 숨이 차는증상이 好轉됨.

1999년 4월 30일 재진 : 10일 服用 후 모든 증상이 개선되고 기운도 생긴다고 함.

1999년 5월 1일 - 모든 증상 호전

(5) 고찰 : 飲食을 잘 먹지 못하고 熱이 나며 自汗 하고 氣가 短한 症은 虛熱이니 補中益氣湯 加 白芍, 黃柏을 用藥 했다. 배꼽³⁹⁾은 生氣의 根源이며 十二經脈의 根이 되며 呼吸의 門이요, 三焦의 源이다. 그러므로 배꼽부위를 帝王切開手術을 했으니가 元氣의 損傷을 받아 숨이 찬 것이다. 또한 맥박이 64,64인데 열이 얼굴로 오른다는 것은 虛熱이다. 元氣를 補하고 腹部律動을 시켜 주는 補中益氣湯에 白芍, 黃柏을 加하여 쓴다.

7) 치험예7 - 남자 33세

(1) 형색 : 몸이 마르고 키가 크고, 결혼한지 6개월 됨.

(2) 맥 : 66 / 64

(3) 증상 : 코가 막히고 코 속이 乾燥(비염)하고, 盜汗이 있다. 허리 다리가 아프다. 피곤을 자주 느끼고 피로해서 낮에 잠을 많이 잔다. 술을 자주 마신다.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잠 잘 때 이불 안에 발을 넣고 자지 못한다.

(4) 치료 및 경과 : 六味地黃湯 合 補中益氣湯 加 知母, 黃柏

1999년 5월 12일 초진 : 결혼한지 얼마 안되어 疲勞하고 코가 막힌다고 來院함.

1999년 5월 29일 再診 : 上記 처방 10일 服用후 피곤한 것과 盜汗이 약간 좋아지고 발바닥에 화끈거리기도 약간 좋아짐.

1999년 6월 12일 재진 : 모든 증상 호전됨.

(5) 고찰 :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잠 잘 때 이불 안에 발을 넣고 자지 못하는 증상은 陰虛한 증상이므로 精氣를 돌리기 위해서 上記 처방을 썼다. 여기서 知母, 黃柏은 正氣湯⁴⁰⁾으로 陰火를 내리고 盜汗을 멎게 하는 처방이다.

8) 치험예8 - 남자 15세

(1) 형색 : 얼굴 색이 희고 얼굴이 길며 手足이 冷하다.

(2) 맥 : 60 / 60

(3) 증상 : 콧물, 재채기가 심하고 감기에 쉽게 걸리며, 입맛이 없고, 소화가 안 된다.

(4) 처방 : 八味丸⁴¹⁾

(5) 고찰 : 이것은 命門火가 부족하여 熱氣가 올라오지 못해서 그렇다. 八味丸으로 下焦를 덥히면 熱氣가 코로 올라가서 코가 뚫리게 된다. 男子가 16살이 되면 精蟲이 完熟 단계에 와야 되는 데 이 환자는 제대로 정충이 完熟 되지 못해서 오는 현상이다. 입맛이 없고 소화가 안되므로 陽虛로 보고 八味丸을 썼다. 만일

34) 上揭書, p.595.

35) 鄭遇悅外, 韓方臨床病理學, 서울, 永林社, 1998, p.119.

36) 東醫寶鑑國譯委員會編譯, 國譯增補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2, p.644.

37) 上揭書, p.1.

38) 上揭書, p.618.

39) 上揭書, p.363.

40) 上揭書, p.92.

41) 上揭書, p.131.

에 입맛이 있다고 한다면 陰虛로 보고 六味地黃丸을 쓴다.

9) 치험예9 - 남자 13세

(1) 형색 : 얼굴 色이 희고, 코가 들리고, 안경(근시), 정신집중이 안 된다.

(2) 맥 : 80 / 79

(3) 증상 : 밤에 盜汗이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면서 재채기를 하며, 코를 벌름거린다.

(4) 처방 : 補中益氣湯 加 季節藥, 當歸六黃湯⁴²⁾

(5) 고찰 : 땀이 나면 몸이 냉각되어 차지니까 코로 찬바람이 들어가서 콧구멍을 막는 것이다. 코가 막히는 증상을 없애주면 눈과 입이 調和와 均衡을 이루면 정신도 맑아진다. 코를 벌름거리는 것⁴³⁾도 肺氣가 虛한 것이다. 이 환자는 中氣가 弱하므로 精氣를 돋구어 주면은 코 막히는 증상이 개선된다. 코는 南北에 걸쳐져 있는데 코가 막힌 증상을 개선 시켜주면 입과 눈이 다 좋아진다.

10) 치험예10 - 여자 35세

(1) 형색 : 氣科 (관골이 옆으로 나와 있음) 膈體

(2) 맥 : 88 / 86

(3) 증상 : 감기가 자주 걸리고 觀骨에 기미가 끼고, 鼻塞症이 오래됨. 피부가 가렵고 손발이 저리다.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며, 惡寒 증상이 있다.

(4) 처방 : 香蘇散⁴⁴⁾

(5) 고찰 : 香蘇散은 12經脈을 운행시켜주는 代表方이며 鬱을 푸는 代表方이다. 脈도 鬱한 狀態의 脈이 나오고 觀骨의 기미도 鬱로 인한 증상이며, 12經脈의 運行이 안되면 手足이 저리는 증상이 생긴다. 經絡의 運行이 안되어서 코가 막힌 것으로 보고 香蘇散을 써서 좋은 효과를 보았다⁴⁵⁾.

11) 치험예11 - 여자 13세

(1) 형색 : 脣赤(乾燥하다) 近視, 魚際가 푸르다.

(2) 맥 : 86 / 86

(3) 증상 : 코가 막히고 아침에 일어나면 콧물이 나온다. 차멀미를 많이 한다. 식사시간이 조금만 늦으면 기운이 없으며, 食後倒飽症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손톱 끝이 잘 부러진다. 帶下가 있다.

(4) 처방 : 益胃升陽湯⁴⁶⁾

(5) 고찰 : 입술은 陰血을 象徵하는 곳인데 입술이 붉은 것은 內傷이며, 손은 陽氣를 받는 곳인데 손톱 끝이 잘 부러지는 것은 升陽이 안되어 나타나는 증상이며, 氣가 부족하여 血을 養하지 못한 것이다. 近視⁴⁷⁾도 陰盛陽虛로서 陽이 虛해서 생기는 증상이다. 이는 飲食을 먹으면 精을 위로 올려줘야 하는데 올려주지 못해서 눈이 나빠지는 것이다.

12) 치험예12 - 여자 13세

(1) 형색 : 얼굴이 넓적 하며, 얼굴에 버짐이 많고, 생기가 없으며, 입술이 붉다. 눈이 크고, 귀가 크며, 눈↑코↑

(2) 맥 : 96 / 94

(3) 증상 : 怯이 많아서 혼자 잠을 자지 못한다. 머리가 자주 아파며 코가 막히고 편도선이 자주 붓는다. 양쪽 무릎이 아프다.

(4) 처방 : 仁熟散⁴⁸⁾, 八物湯 加 牛膝, 杜沖, 木瓜, 續斷 各 1.0

(5) 고찰 : 五臟六腑에서 膽이 虛하면 恐怖하고 두려워서 혼자 누워있지 못하고, 목 감기를 자주 앓으면서 扁桃腺이 잘 붓는다. 이 환자는 膽虛의 形狀과 증상을 가지고 있어서 仁熟散을 쓴 것이다. 膽이 虛하면 寒熱이 생겨서 頭痛이 잦고, 얼굴 色도 生氣를 잃는다. 八物湯은 飲食을 먹으면 滿膈이 胃에서 가려져서 心肺를 滋養해 주어야 하는데 心肺를 滋養해 주지 못할 때 쓴다. 이 환자가 무릎이 아프고 얼굴 色에 생기가 없으면서 버짐이 있다는 것은 氣血이 나쁜 것으로 보고 八物湯에 牛膝, 杜沖, 木瓜, 續斷을 加해 쓴 것이다.

13) 치험예13 - 여자 40세

(1) 형색 : 陽明形이며, 頭大하다.

(2) 맥 : 82 / 80

(3) 증상 : 뒷목이 뻐뻐하고, 얼굴 안면도 뻐뻐하다. 寒熱이 있으며 감기에 걸린 것 같이 항상 몸이 늘어지고 코가 막힌다. 소화 잘 안되고 귀에서 소리가 난다. 腰痛과 脚痛이 있어서 절룩거린다.(정형외과에서 퇴행성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음) 生理不通이 3년 됨.

(4) 처방 : 川芎茶調散⁴⁹⁾

(5) 고찰 : 이 환자는 頭風症으로 보고 川芎茶調散을 用藥한 것이다. 寒熱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 關節의 退行이 빨리 오고 코도 막히는 것이다. 머리는 양두(陽頭)가 되고, 생식기는 음두(陰頭)가 되는데 여자는 陽頭가 爲主가 되며, 남자는 陰頭가 爲主가 된다⁵⁰⁾. 體形이 男子는 太陽 太陰 厥陰이 爲主로 되어 있으며, 女子는 少陽·少陰·陽明이 위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자는 머리(陽頭)를 먼저 치료하면 관절염이 다 낫는다. 남자는 먼저 陰頭를 보강시켜주면 모든 증상이 好轉된다.

14) 치험예14 - 여자 53세

(1) 형색 : 氣科, 얼굴이 검고 윤기가 없다.

(2) 맥 : 72 / 80

(3) 증상 : 얼굴에 두드러기가 난다. 寒熱, 自汗이 심하다. 말을 조금만 많이 해도 머리가 아프며 요즘 체중이 67Kg에서 55Kg으로 감소됨. 손끝의 껍질이 벗겨진다. 痰飲 증상이 있어서 미식거리고, 구역질이 난다. 便秘가 있고 턱 밑에 여드름이 자주 생긴다. 食慾이 너무 왕성하여 배가 불러도 계속 먹는다. 코가 막히고 콧물 재채기가 생긴지 7-8년이 되었다. 여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晝夜가 바뀌어 잠을 설친다.

(4) 처방 : 人蔘養榮湯⁵¹⁾ 加 知母, 黃柏1.0

(5) 고찰 : 나이 자체가 큰 흠이 되는데 이 환자는 49세 이후에 나타나는 虛勞 증상으로 寒熱이 있고, 50세 이후에는 肝이 虛해지는 時期⁵²⁾이므로 肝虛 藥인 人蔘養榮湯을 처방한 것이다. 寒熱

42) 上揭書, p.92.

43) 上揭書, p.113.

44) 上揭書, p.560.

45)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Ⅱ, 서울, 芝山出版社, 1997, p.7.

46) 東醫寶鑑國譯委員會編譯, 國譯增補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2, p.646.

47) 上揭書, p.129.

48) 上揭書, p.134.

49) 上揭書, p.230.

50)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Ⅱ, 서울, 芝山出版社, 1997, p.35.

51) 東醫寶鑑國譯委員會編譯, 國譯增補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2, p.671.

로 인해서 코가 막혔다 뚫렸다 하며, 寒熱이 津液을 損傷 시키므로 얼굴 色이 윤기가 없어지는데 이 약을 服用 後 寒熱 증상이 개선되어 얼굴의 血色이 하얗게 되었다.

15) 치험예15 - 여자 14세

(1) 형색 : 얼굴이 검고 윤기가 없으며 손발이 차다.

(2) 맥 : 64 / 66

(3) 증상 : 코가 막히고, 코딱지가 잘 끼고, 콧물이 목으로 넘어가고, 코피가 잘 나며, 感氣에 잘 걸리고, 콧물이 많이 나오면서 냄새는 잘 맡는다.

(4) 처방 : 五積散⁵³⁾

(5) 고찰 : 원래 축농증은 코에서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이며手足이 차면 寒으로 因해 증상이 온 것이다.手足이 차면 배가 찬데 원래 배는 뜨거워야 되는데 배가 차가 와서 腹部 律動이 안되어서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오는 것이다. 五積散이 女子의 基本方이다. 寒이 걸집된 곳이 배이며 寒이란 차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冬眠을 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冬眠을 하고 있으니 運動만 시켜주면 증상이 호전된다. 五積散에 麻黃이 들어가야 寒邪가 풀려서 코 막힘 증상이 없어진다.

16) 치험예16 - 여자 22세

(1) 형색 : 氣科 코가 길고 눈↑, 코, 귀가 크다.

(2) 맥 : 82 / 88

(3) 증상 : 입이 안 벌어진다고 來院. 感氣 걸린지 3개월이 되었는데도 기침, 코막힘 증상이 낫지 않는다. 痰飲의 形象, 증상이 있다. 自汗 梅核氣, 寒熱往來가 있다. 가슴을 누르다가 누르고 있는 듯, 조이는 듯 하면서 가슴이 답답하다.

(4) 처방 : 蔘蘇飲⁵⁴⁾

(5) 고찰 : 女子는 눈과 입이 발달된 것이 原則이다. 이 환자는 코, 귀 위주로 발달한 것이 큰 흠이다. 女子가 男子의 形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男子의 역할을 수행하려 하니 七情이 動하여 潮熱이 발생하여 寒熱이 往來하는 것이다. 그래서 寒熱이 津液을 損傷시키므로써, 筋骨을 損傷시키니 顎關節에도 영향을 주어 입이 안 벌어지는 증상이 생긴 것이다. 또한 七情損傷으로 因해서 가슴이 조이는 듯한 증상이 생긴다. 蔘蘇飲은 外感 증상 뿐만 아니라 七情 潮熱에도 응용할 수 있는 처방이다.

총괄 및 고찰

鼻塞·鼻軌症은 코의 疾患이라고 해서 단순히 코 병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人體의 전반적인 生理機能을 調節해 줌으로써 鼻塞·鼻軌症을 치료 할 수 있는 것이다.

鼻는 精氣의 通路⁵⁵⁾로 보는데 鼻塞, 鼻軌症이 생겼다면 먼저 세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한다. 첫째는, 精이 나빠서 鼻塞·鼻軌症이 생긴 경우에는 補精을 해야한다. 이 때 代表方이 六味地黃湯이나 腎氣丸을 쓴다. 둘째, 氣가 나빠서 鼻塞·鼻軌症

이 생긴 경우에는 補氣를 시켜준다. 이 때 補氣란 腹部의 律動을 시킨다는 말이다. 이때는 補中益氣湯이나 補中益氣湯 加 季節藥을 쓴다. 셋째, 通路가 나빠서 鼻塞·鼻軌症이 생긴 경우에는 『東醫寶鑑』의 <鼻門>의 처방을 쓴다. 麗澤痛氣湯, 通竅湯 등을 쓴다. 通路가 나빠서 鼻塞·鼻軌症이 생겼다는 것은 코 자체에 異狀이 있다는 뜻이다. 코 자체에 異狀이 있으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것이 特徵이다. 鼻塞·鼻軌症 환자가 오면 냄새를 맡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問診을 해서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면서 코가 막힌다고 하면 傷風이나 傷寒 또는 精氣의 異狀으로 因해서 오는 鼻塞·鼻軌症으로 判斷할 것이며 만약 냄새를 못 맡으면서 코가 막힌다고 하면 코 자체의 異狀으로 보고서 『東醫寶鑑』 <鼻門>에 나오는 처방을 써야 한다.

치험예 1,15는 魚際가 靑한 것이 특징인데, 魚際가 靑하면 배가 찬 것이다. 배가 차면 腹部律動이 안되어서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배가 차하면 생리가 늦어지고 생리통이 생긴다. 處女の場合は 生理 조절해주는 것이 치료의 우선 순서이므로 血虛有寒으로 보고서 通經四物湯을 投與하였다. 치험예 2는 얼굴 血色이 안 좋고 버짐이 생긴 것이 특징이다. '心肺損而 色弊'라 하여 心肺의 상태는 色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心肺의 機能이 나빠지면 血色이 나빠지고 鼻塞不利해진다. 八物湯이 心肺의 機能을 좋아지게 해 주며, 키도 크게 해 준다. 치험예 3은 입술이 붉고 얼굴 色이 黃한 것이 특징이다. 입술이 붉은 것은 內傷이며, 얼굴 色이 누런 것도 食傷症이며, 脾胃기능이 안 좋은 것이다. 이 환자는 脾臟病의 內外症이 다 있기에, 脾虛에 쓰는 補脾湯을 투여하여 좋은 치료효과를 얻었다. 女子는 六腑를 體로 하고 五臟을 用事하므로 五臟의 脾虛藥을 쓴 것이다. 치험예 4, 5, 9는 얼굴 色이 흰 것이 특징이다. 面白者는 肺氣가 虛해서 人體가 內외의 六氣를 이기지 못해서 온 병이다. 李⁵⁶⁾는 '鼻塞이 久不愈者 必傷脾胃 清氣不能上昇 非外感也宜補中益氣湯以和之 此階治本之論'이라 하여, 오랫동안 鼻塞하여 잘 낫지 않는 것은 外感이 아니고 傷脾胃라 하여 補中益氣湯을 쓴다고 되어있다. 陶氏補中益氣湯은 補中益氣湯의 變方으로 內傷 증상보다 外感 증상이 더甚할 때 쓸 수 있는 처방이다. 치험예 6은 帝王切開 手術을 한 것이 特徵이다. 나이도 50세가 넘었으므로 老人病이다. 배꼽은 生氣의 根源이며, 呼吸의 門이요, 三焦의 源인데, 배꼽 밑을 手術했으므로 元氣의 損傷과 腹部律動의 機能이 弱해져서 숨이 차게 되며, 맥박수가 64, 64회로 낮게 뛰면서 얼굴로 열이 오르면서 渴症은 없으니 虛熱이다. 그러므로 元氣를 도와주고 老人病의 基本藥이며 虛熱에 쓰는 補中益氣湯 加 白芍, 黃柏을 투여하여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두었다. 치험예 7,8은 오랫동안 경과된 鼻塞·鼻軌症으로 養血補腎을 治法⁵⁷⁾으로 삼는 것이 原則인데 이것은 心血이 虛損되면 腎水가 적어지게 되며 養血하면 火가 降下하고 補腎하면 水가 上昇하므로 金이 맑아진다. 補腎하는 六味地黃湯, 八味地黃湯, 六味地黃湯 合補中益氣湯을 쓴다. 치험예 10은 氣科 女性으로 그 性情이 鬱滯 되기 쉬운데,

52) 上揭書, p.2.

53) 上揭書, p.559.

54) 上揭書, p.560.

55)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Ⅲ, 서울, 芝山出版社, 1997, p.388.

56) 李挺, 原本編註醫學入門外集卷2, 서울, 大星文化社, 1981, p. 44.

57) 蔡炳允, 韓方眼耳鼻喉科學, 서울, 集文堂, 1982, p.230.

58) 東醫寶鑑國譯委員會編譯, 國譯增補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2, p.664.

59) 東醫寶鑑國譯委員會編譯, 國譯增補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2, p.636.

氣가鬱하면 經絡의 運行이 안되어서 寒熱이 발생하여 코가 막히고 감기몸살 증상이 나타난다. 이 환자의 맥도 88,86으로鬱한 맥이 나와서鬱을 푸는 代表方인 香蘇散을 써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보았다. 치험에 13은 陽明型으로 頭風症이 발병하기 쉬운데, 陽明은 多氣多血하여 몸에 熱이 많아서 차가운 곳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頭風症이 있으면 鼻塞, 聲重하며 감기 기운이 동반되며, 寒熱이 關節의 津液을 損傷시켜 關節의 退行이 빨라진다. 頭風 증상과 鼻塞 聲重에 쓰는 川芎茶調散을 부여하여 좋은 치료 효과를 보았다. 치험에 14는 나이가 53세로 老人에 속하며 虛勞症을 생각해야한다. 虛勞의 常症⁵⁸⁾은 飲食이 減少하고 精神이 昏迷하고 遺精하고 夢泄하고 腰,背,胸,脇,筋,骨이 당기며 아프고 潮熱 하며 自汗 하고 痰이 盛하고 咳嗽하는 症이다. 나이 50이후에는 肝이 虛해지는 시기이므로 肝虛藥인 人蔘養榮湯에 知母, 黃柏을 썼다. 여기서 知母, 黃柏은 水昇, 火降 시키면서 正氣湯으로 自汗, 盜汗에 쓴다. 이 약을 投藥하여 潮熱이 없어짐으로 自汗, 코가 막히는 증상이 好轉되었다. 치험에 16의 경우는 여자는 눈과 입이 發達된 것이 원칙인데, 이 환자는 코 귀 위주로 발달하여 여자이면서 남자의 形象을 가지고 있는 게 흠이다. 女子가 男子의 形象을 가지면 男子의 役割까지 수행하려 하니 七情이 動하여 潮熱이 발생하여 寒熱이 往來하는 것이다. 蔘蘇飲은 外感증상에 사용되는 처방 일뿐만 아니라 七情 潮熱에도 응용할 수 있는 처방이다.

以上の 치험에서 보듯이 같은 증상인 鼻塞·鼻衄症 이라도 形色 男女, 老少에 따라서 治法과 처방이 달라진다. 여기에 제시된 치험에는 鼻塞·鼻衄症의 다양한 病理중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며, 鼻塞·鼻衄症에 定해진 처방은 없다. 어떠한 疾病을 診斷 할 때에 形象을 통해서 病理를 追求하고 形象과 病理를 合一 시키면 처방이 決定되는 것이다. 禁忌 事項도 重要한데, 許⁵⁹⁾는 ‘形寒 飲冷則傷肺’하고, 飽하면 肺가 傷하고, 飢하면 氣가 傷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찬 飲食, 날 것, 생선회를 삼가고 특히 小兒들은 自汗, 盜汗으로 因해서 內衣가 축축해지면 바로 갈아 입혀야한다. 또한 다이어트 한다고 굶는다가거나 또는 飽食하면 치료 기간이 길어지므로 鼻塞·鼻衄症 환자에게는 주지 시켜야 한다.

결 론

저자는 形象 醫學的인 觀點에서 鼻塞·鼻衄症의 치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外感 風寒으로 인한 鼻塞·鼻衄症의 경우에는 蔘蘇飲, 九味羌活湯, 香蘇散을 응용한다. 內傷으로 因한 鼻塞·鼻衄症은 益胃升陽湯 錢氏異功散을 응용한다. 얼굴 色이 희면서 1년 내내 感氣 기운이 있으면서 鼻塞·鼻衄症이 있는 경우에는 陶氏補中益氣湯을 응용한다. 五臟六腑의 機能 不調和로 因한 鼻塞·鼻衄症에는 膽虛로 因한 경우— 仁熟散, 脾虛로 因한 경우— 補脾湯

얼굴 색이 희면서 일년내내 감기기운이 있는 경우에는 陶氏補中益氣湯을 응용한다. 精이 부족하여 오는 경우에는 六味地黃湯, 腎氣丸을 응용한다. 精氣가 부족하여 오는 경우에는 六味地黃湯 合 補中益氣湯을 응용한다. 氣가 부족하여 오는 경우에는 補中益氣湯, 補中益氣湯 合 生脈散을 응용한다. 處女의 경우 月經不順이 있으면서 鼻塞·鼻衄症이 있는 경우 月經을 調節해주면 寒熱이 調節이 되므로 생리불순을 조절 해주는 治法을 우선으로 삼아야한다. 虛勞의 경우 潮熱로 因한 鼻塞·鼻衄症은 潮熱을 치료하면 되는데 人蔘養榮湯에 知母, 黃柏을 加해서 응용한다. 頭風症으로 因한 鼻塞·鼻衄症에는 川芎茶調散을 응용한다. 魚際가 푸르거나, 手足이 차면 배가 寒한 것인데 한해서 오는 경우에는 五積散 등을 응용한다.

참고문헌

1. 馬元臺·張隱庵合註, 黃帝內經 素問靈樞合編, 臺聯國風出版社, 中華民國六十六年.
2. 東醫寶鑑國譯委員會編譯, 國譯增補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2.
3. 李廷, 原本編註醫學入門外集卷2, 서울, 大星文化社, 1981.
4. 蔡炳允, 韓方眼耳鼻咽喉科學, 서울, 集文堂, 1982.
5. 申載鏞編著, 方藥合編解說, 서울, 傳統醫學研究所, 1993.
6.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I, 서울, 芝山出版社, 1997.
7.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II, 서울, 芝山出版社, 1997.
8.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V, 서울, 芝山出版社, 1998.
9.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 臨床學特講V, 서울, 芝山出版社, 1998.
10. 鄭遇悅外, 韓方臨床病理學, 서울, 永林社, 1998.
11.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